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화 연구*

A Typology of Early Elderly Over 55 Years Using The Korean Time Use Survey from 2009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박사수료 채 화 영**
박사수료 김 주 희
교 수 이 기 영

Dept.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Ph. D. Candidate Hwa Young Chae

Ph. D. Candidate Joo Hee Kim

Professor Ki Young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daily life research which aims to explore people's daily lives using a time diary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ypology of early, elderly over 55-year-olds using the 2009 Korean Time Use Survey. The results suggest that each man and woman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ree dimensions which are work time, housework time, and leisure time. Four groups of men are described: the work and leisure balanced type, the work-oriented type, the leisure-oriented type, and the leisure with housework type. Four groups of women are illustrated: the work-oriented type, the leisure-oriented type, the housework-oriented type, and the passive type. The eight groups are characterized by age, education, income, spouse, gender role, lack of time, and satisfaction of time use.

Key Words : 시간(time), 시간연구(time research), 생활시간(time use), 생활시간조사(time survey), 중고령자(early elderly), 노인(elderly), 베이비부머(baby boomer), 유형(typology)

* 본 연구는 2011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지원금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 채화영 (icreamy@snu.ac.kr)

I. 서론

오늘날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중·고령자의 연구는 중요하다.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평균수명의 증가는 중·고령자의 양적 증가뿐 만 아니라 중고령기 기간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평생직장의 부재, 조기퇴직과 재취업, 그리고 계속되는 2차, 3차의 퇴직 등으로 중·고령자는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경험한다. 한편, 인생이 모작이란 긍정적 관점으로 제2의 인생을 맞이하기도 한다. 이렇듯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중·고령자들은 삶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는 연구는 중요하다.

중·고령자가 경험하는 변화는 크게 경제활동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여가시간의 증가이다. 첫째, 조기퇴직 및 은퇴로 인해 중·고령자들은 경제활동이 감소하며, 사회적 역할의 축소 및 부채를 경험하게 된다(신현구, 2007; 김연주·차경옥, 2008). 201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55~79세 인구의 60.1%가 향후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선택기준은 임금수준이 중요했다. 60세 이상의 일자리 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48.2%로 전체 연령 평균인 33.1%로 보다 높았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0). 이는 중·고령자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으나 직업지위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관계의 변화이다. 중·고령자는 자녀의 혼인과 배우자의 퇴직 및 은퇴,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의 변화를 경험한다(배나래·박충선, 2009; 정여진·안정신, 2010). 자녀의 혼인으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며, 중·고령자의 퇴직과 은퇴로 인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다.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및 새로운 가족원의 탄생, 기존 가족원의 부재 등은 가사노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족원이 분

가한 경우 청소, 설거지, 세탁 등의 가사노동은 감소하지만, 손자녀의 탄생으로 인해 돌봄노동이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은 여성에게 가사노동을 감소시키고, 남성에게는 가사노동을 증가시킨다.

셋째, 여가시간의 변화이다. 중·고령자들은 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문제 또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은 익히 알려져 있다. 여가활동의 대부분을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주현·한경혜, 2001; 나한진, 2004; 윤소영, 2006; 김영범·이승훈, 2008). 그러나 여가시간을 손자녀 돌봄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이연숙, 2010).

본 연구는 중·고령자가 경험하는 주요한 세 가지 변화에 초점을 두어 일상생활영역을 경제활동영역, 가정생활영역, 여가활동영역으로 구성하고, 영역별 생활시간을 통해서 중·고령자의 다양한 일상생활의 유형을 찾고자한다. 일상생활연구 중 시간연구는 24시간을 시간일지를 통해 일상을 파악하는 연구로써 실제적·경험적 연구 자료로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통해서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며,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패턴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밝혀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일상생활연구로서의 시간연구

일상생활은 되풀이되고 습관화되고 당연히 여겨지는 연구 자료지만 이는 개인 주체들의 행위이며 사회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전체 구조에 대한 자료를 내포하고 있다(강

수택, 1998; 마페줄리, M. 르페브르 H. 외, 1994; 박재환외, 1998). 일상생활 속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들은 개인과 사회를 재생산하는 과정이 된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구조가 연결되므로 일상생활연구는 중요하다. 일상세계 영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고방식, 가치, 규범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주장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일과표(social time table)는 거의 비슷하다.

일상생활연구 중 한 영역이 생활시간연구이다. 생활시간연구는 24시간동안 개인의 행위를 기록한 자료를 이용하여 하루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밝힌다. 일상생활을 개인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는 방식이다. 한국의 생활시간연구는 1995년 한국방송공사의 국민생활시간조사로 시작되었다. 언론사의 생활시간조사 목적은 방송 편성을 위해서 시간대별로 텔레비전 시청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1999년부터 통계청이 생활시간조사를 주관하고 있다. 5년에 한 번씩 1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보편적인 자료로써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파악하고 있다.

생활시간연구를 통해 일상생활을 파악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Pentland·Lawton·Harvey & McColl(1999)은 캐나다, 미국,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시간연구를 모아서 시간사용과 삶의 질 관계를 밝혔으며, 시간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하여 시간자료를 통해 어떻게 일상생활을 연구하는지 보여줬다. Robinson & Godbey(1997)은 시간연구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연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가시간과 노동시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으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여가시간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연령, 성차, 인종, 교육수준, 사회적 역할 등의 변수에 따라 어떻게 여가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사회적 역할(부도역할, 결혼역할 등)이 성차나 인종보다 중요한 변수였다(Bianchi·Robinson & Milkie, 2006). Bianchi·Robinson & Milkie(2006)은 시간연구를 통해 지난 40년 동안 미국인 가족생활 변화를 밝혔다. 미국의 엄마들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수입노동시간이 증가했다. 놀라운 발견은 수입노동시간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10년 전 보다 증가했다(Robinson & Godbey, 1997).

시간연구는 일상생활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연구로서 중·고령자의 생활시간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일상생활을 세 영역으로 구조화하여 연구하였다.

2. 중·고령자의 생활시간연구 경향 및 관련변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하여 발표된 논문은 <표1>과 같다.

우선, 연구 경향은 초기 1999년 생활시간조사 연구들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생활시간조사의 모든 영역의 시간 양을 기술했다(김은경·김응렬, 2002; 정경희, 2001). 40~50대 중년의 무급노동에 대한 가치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김정석, 2005). 박민자·손문금(2005)은 일상생활연구의 관점으로 생활시간연구를 바라보고 통계청 조사의 모든 영역을 기술하였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통한 연구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거나(김진옥, 2006b; 양영순, 2007) 40대~60대를 중고령층으로 규정하는(김정석, 2010) 연구들이 등장했다. 이는 빨라지는 은퇴시기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으로서 노년층의 연령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생활시

〈표 1〉 중·고령자의 생활시간조사 연구

연구자	연구연령	생활시간조사 내용 및 분류	자료
정경희·윤지은 (2010)	65세 이상	생산활동참여 연구 ·협의의생산활동: 노동시장참여활동시간 ·광의의생산활동: 가사노동시간, 자원봉사활동시간	2004년 생활시간 조사
김정석 (2010)	40대 후반 ~ 60대	식사관련행위 연구 ·부부의 식사행위, 식사준비형태, 식사설거지형태	2004년 생활시간 조사
김주현 (2007)	65세 이상	생산적 활동 연구 ·경제적 활동: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돌봄·지원활동: 가족보살피기시간, 사회참여시간, 타인돕기시간 ·자기개발활동: 학습활동시간, 교제활동시간, 종교활동시간, 여가활동시간	2004년 생활시간 조사
양영순 (2007)	60세 이상	노인의 시간사용과 역할 연구 ·제도적 역할: 노동시간, 가정관리시간, 가족보살피기시간 ·희박한 역할: 개인유지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비공식적 역할: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	2004년 생활시간 조사
김진욱 (2006a)	65세 이상	생산적 활동 연구 ·경제적 생산활동: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사회적 생산활동: 가족보살피기시간, 참여및봉사활동시간 생활세계비교 ·개인유지시간 ·일: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가족: 가사노동시간, 보살핌노동시간 ·사회참여 및 여가: 참여및봉사활동, 교제활동시간, 대중매체이용시간, 종교활동시간, 문화스포츠취미시간, 기타여가시간	2004년, 1999년 생활시간 조사
김진욱 (2006b)	60세 이상	생활세계연구 ·일: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가족: 가사노동시간, 가족보살피기시간 ·사회참여 및 여가: 참여및봉사활동시간, 교제활동시간, 대중매체이용시간, 종교활동시간, 문화스포츠취미시간, 기타여가활동시간	2004년 생활시간 조사
박민자·손문금 (2005)	65세 이상	일상생활연구 ·개인유지시간 ·유급노동시간: 일 및 학생의 학교 학습 ·무급노동시간: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여가시간: 참여및봉사활동, 종교활동, 교제활동, 레저활동, 대중매체활동 ·이동시간: 이동활동시간 ·기타시간: 기타활동	1999년 생활시간 조사
김정석 (2005)	40대~50대	무급노동 내용과 시간량 연구 ·가사노동시간 ·가족보살피기시간	1999년 생활시간 조사
김은경·김응렬 (2002)	50~64세 65세 이상	생활시간구조분석 ·통계청 조사의 모든 영역	1999년 생활시간 조사
정경희 (2001)	65세이상	생활시간배분형태 ·통계청 조사의 모든 영역	1999년 생활시간 조사

간의 연구 영역도 다양하게 재구조화되었다. 특히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에 주목한 연구가 많았다. 생산적 활동을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경제적 활동과 비경제적으로 분류했다. 비경제적 활동은 가족보살피기시간과 참여및봉사활동 시간 등을 포함하였다(김주현, 2007; 김진옥 2006a; 정경희·윤지은, 2010). 노인의 역할에 따라 생활시간조사의 영역을 재구성하거나(양영순, 2007), 일·가족·사회참여 및 여가로 노인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기도 했다(김진옥, 2006b).

종합해 보면, 조기퇴직 및 은퇴의 사회적 변화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연구대상자 연령의 변화로 반영되었다. 생활시간조사의 모든 영역을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기술하는 연구와 더불어 시간연구를 통해 그들의 삶의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노년층의 생산적 활동을 피력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일상생활이나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다른 연령 집단과의 비교에 그쳐서 그들의 다채로운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령자 집단 내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일상생활시간 차이를 기반으로 유형화하여 그들을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중·고령자의 생활시간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겠다. 기존 연구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여부, 지역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차이를 분석했다(김은경·김웅렬, 2002; 박민자·손문금, 2005; 양영순, 2007; 정경희, 2001). 특히 생산적 활동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상황, 배우자유무, 지역, 주택형태, 시간부족인식 등이다(김주현, 2007; 김진옥 2006a; 김진옥 2006b). 노인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조사요일, 농가구분, 혼인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이었고, 가족관련 시간은 연령, 교육수

준, 농가구분, 혼인상태별 차이를 나타냈다(김진옥 2006b).

본 연구는 중·고령자 유형의 집단별 특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배우자유무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성역할태도, 시간부족감, 시간사용만족감의 주관적 변수를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통계청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시간을 분석했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는 2009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자기기입식 시간일지를 통해 한 사람 당 이틀씩 조사되었다. 응답자는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자신의 행동을 일기 쓰듯이 기입하였다(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홈페이지 2011). 본 연구는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평일 시간일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중·고령자가 겪는 경제활동 변화는 경제활동영역을 통해서 가족관계의 변화는 가정생활영역을 통해서 여가시간의 증가는 여가활동영역을 통해서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시간을 파악했다.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세부항목을 재조정하여 생활시간을 구성하였다<표2>. 경제활동영역은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으로 구성하고, 가정생활영역은 가정관리시간과 가족보살피기시간으로, 여가활동영역은 미디어 이용과 교제 및 취미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참여 및 봉사활동은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여가'의 범주에 포함시켰다(홍향숙·박수경, 1994; 박수미·선보영·김진옥, 2005). 자료 분석은 SPSS

〈표 2〉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영역과 생활시간

사회적 변화	일상생활영역	생활시간	2009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항목
경제활동 변화	경제활동영역	유급노동시간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노동시간	무급가족종사자 일(농림어업제외),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자일
가족관계 변화	가정생활영역	가정관리시간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 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가족보살피기시간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보살피기
여가시간 증가	여가활동영역	미디어이용시간	미디어 이용
		교제 및 취미활동시간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 구입, 기타 여가 관련 행동,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참여활동, 자원봉사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단위: 빈도(%)

변수	구분	전체(5,878)	빈도(%)	
			남(2,653)	여(3,225)
연령	55-59세	1,384(23.5)	664(25.0)	720(22.3)
	60-64세	1,254(21.3)	625(23.6)	629(19.5)
	65-69세	1,095(18.6)	504(19.0)	591(18.3)
	70-74세	1,035(17.6)	455(17.2)	580(18.0)
	75세이상	1,110(18.9)	405(15.3)	705(21.9)
교육수준	초졸이하	3,194(54.3)	947(35.7)	2,247(69.7)
	중졸이하	1,024(17.4)	554(20.9)	470(14.6)
	고졸이하	1,166(19.8)	776(29.2)	390(12.1)
	전문대졸이상	494(8.4)	376(14.2)	118(3.7)
월평균 소득수준	50만원미만	3,170(53.9)	782(29.5)	2,388(74.0)
	50-100만원미만	1,276(21.7)	673(25.4)	603(18.7)
	100-150만원미만	500(8.5)	378(14.2)	122(3.8)
	150-200만원미만	399(6.8)	345(13.0)	54(1.7)
	200만원이상	533(9.1)	475(17.9)	58(1.8)
배우자유무	유배우자	4,220(71.8)	2,380(89.7)	1,840(57.1)
	무배우자	1,658(28.2)	273(10.3)	1,385(42.9)
성역할태도	전통적	3,025(51.5)	1,435(54.1)	1,590(49.3)
	근대적	2,853(48.5)	1,218(45.9)	1,635(50.7)
시간부족감	부족함	2,323(39.5)	1,111(41.9)	1,212(37.6)
	부족하지 않음	3,546(60.5)	1,542(58.1)	2,013(62.4)
생활시간 사용만족도	만족함	2,113(35.9)	975(36.7)	1,138(35.3)
	보통	2,968(50.5)	1,315(49.6)	1,653(51.3)
	만족하지 않음	797(13.5)	363(13.7)	434(13.5)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교차분석, 군집분석을 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5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정의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50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며(시행령2조 1항),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실태 연구(석상훈 외, 2008)도 50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분석했다. 통계청 200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을 55세~79세로 규정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2009년에 발표한 ‘은퇴자의 은퇴준비과정 및 생활실태 분석’에 따르면 실제은퇴연령은 평균 56.3세였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연령과 실제 은퇴 연령, 통계조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중·고령자의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평일시간일지는 5,878개로 집계되었고, 남성이 2,653개, 여성 3,225개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은 <표3>과 같고, 전반적인 생활시간은 <표4>와 같다.

<표4>를 보면 중·고령자는 대부분 개인유지

와 여가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평균은 그 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준편차가 크므로 중·고령자의 집단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 중앙값과 평균의 차이가 커서 평균값이 집단의 다수를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시간의 행위자비율(특정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의 비율)과 행위자평균(특정행동을 한 사람들의 평균시간)을 제시하여, 보다 정교하게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경향을 파악했다.

3. 연구문제

1)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영역별 생활시간의 경향은 어떠한가?

- (1)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시간의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은 어떠한가?
- (2) 중·고령자의 가정생활시간의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은 어떠한가?
- (3)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시간의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은 어떠한가?

2) 중·고령자는 생활시간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1-1) 남성 중·고령자는 경제활동시간·가정

<표4> 연구대상의 전체 생활시간조사 결과

단위: 시:분

구 분		개인유지	일	가사노동	여가	이동
남성 (2,653)	평균	11:13	3:42	0:52	6:21	1:33
	표준편차	1:51	3:48	1:14	3:20	1:15
	중앙값	11:00	2:40	0:20	6:10	1:20
여성 (3,225)	평균	11:16	1:58	3:25	5:39	1:19
	표준편차	1:49	3:06	2:07	2:52	1:07
	중앙값	11:10	0:00	3:10	5:40	1:10

생활시간·여가활동시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1-2) 남성의 시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시간사용만족도는 어떻게 다른가?
- (2-1) 여성 중·고령자는 경제활동시간·가정생활시간·여가활동시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2-2) 여성의 시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시간사용만족도는 어떻게 다른가?

IV. 연구결과

1.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경향

중·고령자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일상생활을 경제활동영역, 가정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의 생활시간을 살펴보았다. 생활시간은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으로 살펴보았다.

1) 경제활동영역의 생활시간 경향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영역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유급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의 55.2%, 여성의 23.5%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만15~29세 고용률은 41.3%, 만30~34세 고용률은 69.7%로 보고됐다(2009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고령층부가조사).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는 청년기보다 높고, 30대 초반보다 낮았다. 중·고령

자의 경제활동 경향을 보충하면, 만55~79세 집단의 취업률은 남성이 61.7%, 여성이 37.9%로 나타났다(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이는 연령제한으로 인해 시간일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취업경험이 있으나 현재 미취업인 경우는 남성 38.1%, 여성 52.5%로 나타나(통계청, 2009) 여성은 중·고령기를 맞이 하면서 경제활동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5~79세 취업자의 산업분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7%)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농림어업(27.4%), 도소매·음식숙박업(20.1%) 순이었다. 이는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다(통계청, 2009).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27.3%, 농림어업순력종사자 25.2%로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에 비해서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전문·기술·행정관리자와 사무종사자 비중은 낮았다.

중·고령자의 유급노동 행위자평균시간은 남성의 경우 6시간 21분, 여성의 경우 5시간 38분으로 나타났다(표5).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15세 이상 취업자(주5일근무)의 유급노동시간은 남성이 7시간 19분, 여성이 6시간 30분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중·고령자의 유급노동시간이 1시간정도 축소됐지만, 여전히 장시간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무급노동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행위자율이 1.9%, 9.7%로 낮았다. 여성의 무급노동자

〈표 5〉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영역의 생활시간

단위: %, 시:분

구분	유급노동		무급노동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시간
남 성	55.2	6:21	1.9	2:38
여 성	23.5	5:38	9.7	4:29

〈표 6〉 중·고령자의 가정생활영역 중 가정관리시간

단위: %, 시:분

구 분	남성		여성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시간
가정관리	59.6	1:14	96.1	3:15
음식준비및정리	27.7	0:51	92.5	1:55
의류관리	6.3	0:31	55.7	0:45
청소및정리	34.8	0:35	76.8	0:46
집관리	21.2	0:43	20.7	0:33
가정관리관련물품구입	9.6	0:38	30.9	0:40
가정경영	6.6	0:39	5.7	0:29
기타가사일	1.7	0:32	1.6	0:20

〈표 7〉 중·고령자의 가정생활영역 중 가족보살피기시간

단위: %, 시:분

구 분	남성		여성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시간
가족보살피기	11.6	1:05	23.8	1:14
미취학아이보살피기	4.4	1:20	7.1	2:11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1.5	0:29	5.4	0:42
배우자보살피기	4.0	0:52	8.2	0:37
부모및조부모보살피기	0.9	0:40	0.7	1:36
그외가족보살피기	1.7	1:12	5.9	0:40

비율이 남성보다 5배가량 높았다. 여성의 행위자평균시간도 4시간 29분으로 남성보다 2배가량 길었다. 무급노동시간은 유급노동과는 반대로 여성이 많으며 무급노동시간의 남녀격차는 유급노동시간보다 더 컸다.

종합해보면 55세 이상 중·고령자는 15세 이상 취업자에 비해 다소 위축된 경제활동 경향을 보였으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부연 설명을 하면, 중·고령자 실업률이 55~64세는 2.9%이지만 65~79세는 1.8%로 줄어든다(통계청, 2009). 이러한 경향은 중·고령자 초기에 실직을 많이 하며, 중·고령자 후기에는 경제활동을 원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함을 보여준다.

2) 가정생활영역의 생활시간 경향

중·고령자의 가정생활영역을 가정관리시간과 가족보살피기시간으로 나누면 <표6>과 <표7>과 같다. 우선 가정관리의 경우 여성의 행위자율이 96.1%로 남성의 59.6%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대부분이 가정관리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행위자평균시간도 여성이 3시간 15분으로 남성의 1시간 14분 보다 3배가량 높다. 이를 통해 여전히 여성이 가정관리의 주요 담당자임을 알 수 있다. 가정관리의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남성은 청소및정리(34.8%)를 가장 많이 하는 반면에, 여성은 음식준비및정리(92.5%)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행위자평균시간은 남성(0:51)과 여성(1:55) 모두 음식준비및정리 시간이 가장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자의 가정생활영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식사관련시간임을 보여준다.

가족보살피기의 경우 여성 행위자율이 23.8%로 남성의 11.6%에 비해 2배가량 높았으나, 행위자평균시간은 여성(1:14)이 남성(1:05)에 비해 9분 더 가족보살피기시간이 많아 남녀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보살피기의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남성 행위자비율은 미취학아이보살피기(4.4%)와 배우자보살피기(4.0%)가 높고, 여성 행위자비율은 배우자보살피기(8.2%)와 미취학아이보살피기(7.1%)가 가장 높다. 행위자평균시간의 경우 남성은 미취학아이보살피기(1:20)와 그외가족보살피기(1:12)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성은 미취학아이보살피기(2:11)와 부모및조부모보살피기(1:96)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생애주기관점에서 자녀가 성장한 시기인 중·고령자가 미취학아이보살피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이는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의 돌봄 역할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사료된다.

20세 이상 집단의 가정관리시간과 가족보살피기시간을 포함한 가정생활시간을 살펴보면, 남성 행위자비율은 50.9%, 행위자평균시간은 1시간 7분으로 나타났고, 여성 행위자비율은

92%, 행위자평균시간은 3시간 49분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이는 중·고령기가 되면서 가정생활영역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특징은 중·고령자 남성의 경우, 가족보살피기시간의 행위자율(11.6%)은 20세 이상 집단(15.6%)보다 낮아졌지만, 행위자평균시간(1:05)은 20세 이상 집단(55분)보다 길어졌다. 그에 반해 여성은 가족보살피기 행위자율(23.8%)과 행위자평균시간(1:14)이 20세 이상 집단의 행위자율(43.7%)과 행위자평균시간(1:51)보다 감소했다.

이러한 차이는 중·고령자의 가정생활영역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중·고령자 남성은 20세 이상 집단보다 가족보살피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여성은 20세 이상 집단보다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3) 여가활동영역의 생활시간 경향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영역을 미디어이용시간과 교제 및 취미활동시간으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미디어이용과 교제 및 취미활동의 전체 행위자율의 성차는 거의 없으며, 행위자평균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미디어이용은 남녀 모두 높은 행위자율(남95.6%, 여94.6%)을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표 8)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영역의 생활시간

단위: %, 시:분

구 분	남성		여성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시간
미디어이용	95.6	3:37	94.6	3:04
교제및취미활동	94.9	3:03	94.1	2:56
교제활동	69.2	1:05	74.8	1:14
종교활동	7.0	1:53	18.6	2:09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8	1:42	0.6	1:43
스포츠및집밖레저	55.8	1:40	41.1	1:23
그외활동(학습,독서,봉사활동 등)	74.7	1:26	65.4	1:19

의 중·고령자가 여가를 미디어이용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제 및 취미활동의 경우 행위자율은 남성과(94.9%) 여성이(94.1%) 비슷하고, 행위자평균시간은 남성(3:03)이 여성(2:56)보다 조금 많다. 교제 및 취미활동의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행위자비율은 남성은 그외활동(74.7%)과 교제활동(69.2%)을 많이 하며, 여성은 교제활동(74.8%)과 그외활동(65.4%)을 많이 한다. 그외활동의 행위자비율이 높은 이유는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습과 독서, 봉사활동, 술, 춤, 노래방 등의 유흥, 장기, 바둑, 화투, 카드 등의 놀이 등이 포함되었다. 행위자평균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종교활동(남 1:53, 여 2:09)과 관람및 문화행사참여(남1:42, 여1:43)에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20세 이상 성인의 여가활동시간과 비교해보면, 성인 남성이 평균 5시간 22분, 여성이 평균 5시간으로(통계청, 2010) 중·고령자보다 1시간가량 적었다. 특히 미디어이용시간이 남성 2시간 25분, 여성 2시간 15분으로 중·고령자와 1시간 정도 차아가 나므로 중·고령자들의 여가활동은 교제 및 취미활동보다 미디어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이 다채롭지 않고 수동적 여가생활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2.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화

경제활동영역·가정생활영역·여가활동영역의 시간을 중심으로 중·고령자를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 집단에 대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배우자 유무의 사회인구학적 차이와 성역할태도, 시간부족감, 시간만족도의 주관적 변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남녀의 생활시간은 상이하므로(김주현, 2007; 김진욱 2004; 박민자 외 2005; 양영순, 2007), 남녀를 구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층위로 분석하고자 했다.

1) 남성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화 및 특성

(1) 남성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

남성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시간, 가정생활시간, 여가활동시간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표9).

유형1은 경제활동시간이 평균보다 높고, 가정활동시간과 여가활동시간이 평균보다 낮으며,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2는 경제활동시간이 평균보다 훨씬 높으며, 가정생활시간과 여가활동시간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집단이며, 22%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1과 유형2는 평균비교 부호는 같지만, 유형1의 경우 여가활동시간이 상대적으로 2배 가량 많고, 유형2의 경우 경제활동시간이 유형1에 비해 많다. 유형1은 일과 여가생활을 균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균형

〈표 9〉 남성 중·고령자의 유형화

구분	빈도수	경제활동시간	가정생활시간	여가활동시간	평균비교
균형형	659(25%)	350.33	31.82	279.32	+ - -
생계형	574(22%)	545.42	16.31	139.36	+ - -
여가형	814(31%)	15.18	46.55	623.40	- - +
가정적여가형	606(23%)	52.06	113.73	392.85	- + +

단위: 분

형으로 명명한다. 유형2는 경제활동시간 외의 다른 영역 시간은 매우 적으므로 유형2를 생계형으로 명명한다.

유형3은 경제활동시간과 가정생활시간이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여가활동시간이 평균치의 2배가량 되며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3은 다른 활동에 비해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여가형으로 명명한다.

유형4는 경제활동시간은 평균보다 낮으며, 가정생활시간과 여가활동시간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4

를 가정적여가형으로 명명한다.

(2) 남성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별 특성
남성 중·고령자의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변수의 차이는 <표10>과 같다.

균형형은 55~59세(34.9%), 60~64세(25.6%), 65~69세(20%)에 균등하게 분포되어있고,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이하(31.3%)가 가장 많지만 특히 다른 유형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17.1%)의 비율이 가장 높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200만원이상 집단이 29.0%로 가장 많으며, 배우

<표 10> 남성 중·고령자의 유형별 특성

단위: 빈도(%)

구분	균형형	생계형	여가형	가정적여가형	X ²	
연령	55~59세이하(25.0)	230(34.9)	246(42.9)	93(11.4)	95(15.7)	399.819***
	60~64세이하(23.6)	169(25.6)	162(28.2)	161(19.8)	133(21.9)	
	65~69세이하(19.0)	132(20.0)	89(15.5)	156(19.2)	127(21.0)	
	70~74세이하(17.2)	80(12.1)	54(9.4)	191(23.5)	130(21.5)	
	75세이상(15.3)	48(7.3)	23(4.0)	213(26.2)	121(20.0)	
교육수준	초졸이하(35.7)	203(30.8)	168(29.3)	307(37.7)	269(44.4)	48.100***
	중졸이하(20.9)	137(20.8)	144(25.1)	151(18.6)	122(20.1)	
	고졸이하(29.2)	206(31.3)	182(31.7)	236(29.0)	152(25.1)	
	전문대졸이상(14.2)	113(17.1)	80(13.9)	120(14.7)	63(10.4)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29.5)	79(12.0)	23(4.0)	406(49.9)	274(45.2)	630.600***
	50 ~ 100만원 미만(25.4)	169(25.6)	143(24.9)	201(24.7)	160(26.4)	
	100 ~ 150만원미만(14.2)	99(15.0)	151(26.3)	65(8.0)	63(10.4)	
	150 ~ 200만원미만(13.0)	121(18.4)	118(20.6)	70(8.6)	36(5.9)	
배우자	유배우자(89.7)	615(93.3)	531(92.5)	723(88.8)	511(84.3)	33.935***
	무배우자(10.3)	44(6.7)	43(7.5)	91(11.2)	95(15.7)	
성역할태도	전통적(54.1)	348(52.8)	319(55.6)	440(54.1)	328(54.1)	.947
	근대적(45.9)	311(47.2)	255(44.4)	374(45.9)	278(45.9)	
시간부족감	부족함(41.9)	411(62.4)	415(72.3)	115(14.1)	170(28.1)	637.032***
	부족하지 않음(58.1)	248(37.6)	159(27.7)	699(85.9)	436(71.9)	
시간사용만족도	만족(36.7)	293(44.5)	201(35.0)	293(36.0)	188(31.0)	32.774***
	보통(49.6)	302(45.8)	295(51.4)	404(49.6)	314(51.8)	
	불만족(13.7)	64(9.7)	78(13.6)	117(14.4)	104(17.2)	
합계	659(100)	574(100)	814(100)	606(100)		

* p<.05, ** p<.01, *** p<.001

자가 있는 비율(93.3%)도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가장 높다.

생계형은 55~59세(42.9%)와 60~64세(28.2%)에 가장 많고, 70세이상(4%)이 가장 적다. 교육수준은 초졸이하부터 고졸이하까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있다. 소득수준은 50만원 미만(4%)을 제외하고 비슷한 분포이지만, 100~150만원 미만(26.3%)과 150~200만원미만(20.6%)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다.

여가형은 70~74세(23.5%)와 75세이상(26.2%) 범위에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75세이상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다. 교육수준은 초졸이하(37.7%)와 고졸이하(29%)가 많고, 소득수준은 50만원미만(49.9%)이 가장 많다. 배우자 유무는 유배우자(92.5%)가 더 많다.

가정적여가형은 55~5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며, 교육수준은 초졸이하의 비율(44.4%)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다. 소득은 50만원미만(45.2%)이 가장 많으며 50~100만원미만(26.4%)도 다른 유형에 비해 많다. 무배우자 비율(15.7%)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가장 높다.

종합해보면, 균형형은 중·고령자의 모든 연령에 균등하게 분포하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유배우자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가장 높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시간사용 만족의 비율이 가장 높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으며 아내가 있어서 가정생활의 책임이 낮을 때 일과 여가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었다.

생계형은 연령이 낮은 것이 특징이며(55~64세), 모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서 균등한 분포를 나타냈다. 남성 중·고령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는 여전히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루 평균 9시간 5분으로 장시간 노동활동을 하며 소득수준은 100~200만원(46.9%)정도였다. 또한 시간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여가형은 연령이 높고(70세이상) 여가시간은 많지만 소득은 부족한 특징을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아지나 소득은 감소하여 소극적 여가에 집중될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가활동이 미디어이용에 집중될 소지가 있다.

가정적여가형은 65~74세이하가 많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무배우자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아내의 부재로 가정생활영역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경제활동시간이 적으므로 소득수준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유형이다.

2) 여성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화 및 특성

(1) 여성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

여성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시간, 가정생활시간, 여가활동시간을 통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표11). 유형1은 경제활동시간과 가정생활시간이 평균

〈표 11〉 여성 중·고령자의 유형화

단위: 분

구분	빈도수	경제활동시간	가정생활시간	여가활동시간	평균비교
여가형	1,210(38%)	8.04	153.13	515.03	- - +
생계형	648(20%)	454.81	125.26	130.49	+ - -
소극형	655(20%)	102.20	190.24	274.69	- - -
살림형	712(22%)	11.85	380.83	291.00	- + -

보다 낮으며 여가활동시간만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집단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1은 여가형으로 명명한다.

유형2는 경제활동시간이 평균보다 훨씬 높으며, 가정생활시간과 여가활동시간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2는 생계형으로 명명한다.

유형3은 경제활동시간, 가정생활시간, 여가활동시간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3은 소극형으로 명명한다.

유형4는 가정생활시간은 평균보다 높으며, 경제활동시간과 여가활동시간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4는 살림형으로 명명한다.

(2) 여성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별 특성
여성 중·고령자의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변수의 차이는 <표12>와 같다.

여가형은 75세이상(34.7%)과 70~74세미만(21.6%)의 비율이 가장 많고, 교육수준은 다른 유형과 같이 초졸이하가 가장 많고, 중졸이하,

<표 12> 여성 중·고령자의 유형별 특성

단위: 빈도(%)

구분	여가형	생계형	소극형	살림형	X ²	
연령	55~59세이하(22.3)	163(13.5)	228(35.2)	132(20.2)	197(27.7)	379.846***
	60~64세이하(19.5)	173(14.3)	168(25.9)	113(17.3)	175(24.6)	
	65~69세이하(18.3)	193(16.0)	113(17.4)	125(19.1)	160(22.5)	
	70~74세이하(18.0)	261(21.6)	104(16.0)	119(18.2)	96(13.5)	
	75세이상(21.9)	420(34.7)	35(5.4)	166(25.3)	84(11.8)	
교육수준	초졸이하(69.7)	882(72.9)	475(73.3)	472(72.1)	418(58.7)	60.843***
	중졸이하(14.6)	146(12.1)	91(14.0)	91(14.0)	141(19.8)	
	고졸이하(12.1)	139(11.5)	56(8.6)	70(10.7)	125(17.6)	
	전문대졸이상(3.7)	43(3.6)	26(4.0)	21(3.2)	28(3.9)	
월평균소득	50만원미만(74.0)	1,039(85.9)	250(38.6)	487(74.4)	612(86.0)	570.539***
	50~100만원미만(18.7)	120(9.9)	280(43.2)	129(19.7)	74(10.4)	
	100~150만원미만(3.8)	25(2.1)	59(9.1)	21(3.2)	17(2.4)	
	150~200만원미만(1.7)	14(1.2)	29(4.5)	7(1.1)	4(0.6)	
	200만원이상(1.8)	12(1.0)	30(4.6)	11(1.7)	5(0.7)	
배우자	유배우자(57.1)	515(42.6)	443(68.4)	375(57.3)	507(71.2)	195.768***
	무배우자(42.9)	695(57.4)	205(31.6)	280(42.7)	205(28.8)	
성역할태도	전통적(49.3)	657(54.3)	256(39.5)	320(48.9)	357(50.1)	37.211***
	근대적(50.7)	553(45.7)	392(60.5)	335(51.1)	355(49.9)	
시간부족감	부족함(37.6)	224(18.5)	504(77.8)	248(37.9)	236(33.1)	639.895***
	부족하지 않음(62.4)	986(81.5)	144(22.2)	407(62.1)	476(66.9)	
시간사용 만족도	만족(35.3)	402(33.2)	233(36.0)	254(38.8)	249(35.0)	22.281**
	보통(51.3)	655(54.1)	300(46.3)	317(48.4)	381(53.5)	
	불만족(13.5)	153(2.6)	115(17.7)	84(12.8)	82(11.5)	
합계	1,210(100)	648(100)	655(100)	712(100)		

* p<.05, ** p<.01, *** p<.001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하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50만원미만(85.9%)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무배우자(57.4%)인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다.

생계형은 55~59세(35.2%)와 60~64세(25.9%)가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소득수준은 50~100만원미만(43.2%)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극형은 모든 연령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경우 다른 유형과 같이 초졸이하(72.1%)가 가장 많고, 50만원미만(74.4%)이 가장 많다. 배우자 비율은 유배우자(57.3%)와 무배우자(42.7%)가 비슷하다.

살림형은 55~59세(27.7%)와 60~64세(24.6%)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교육수준은 초졸이하(58.7%)가 가장 많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그 비중이 가장 적고 중졸이하(19.8%)와 고졸이하(17.6%)의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다. 유배우자 비율(71.2%)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다.

종합해보면, 여가형은 70세이상으로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연령이 높고 무배우자가 많은 것은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높은 것을 반영한다.

생계형은 연령이 낮고(55~64세)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7시간 45분이며 소득수준은 50~100만원 미만(43.2%)이다. 이는 남성생계형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2시간 반 정도 적지만, 소득격차는 크다(남성 생계형 평균 100~200만원). 그러나 남성생계형에 비해서 가정생활활동을 하루 1시간 39분을 더 많이 하며, 여가생활영역은 하루 9분이 더 적다. 또한 시간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시간사용만족감도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소극형은 세 영역의 시간이 모두 적은 집단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과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

다. 경제활동영역, 가정생활영역, 여가활동영역의 시간이 평균보다 낮은 것을 보아 세 영역을 제외하고 남은 개인유지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살림형은 대체로 55~69세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교육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초졸 초과~고졸이하(37.4%)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유배우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많다. 이는 연령이 낮고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중간 정도이며, 남편이 있는 경우 가정생활영역을 책임지고 있으며 여가활동시간도 하루 4시간 51분으로(여성전체평균 5:39) 적당히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축소될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연구결과 중·고령자의 장시간 노동을 밝힌 것은 의미 있다. 유급노동의 성별 행위자평균을 살펴보면 남성은 6시간 21분, 여성은 5시간 53분이다. 무급노동의 경우 남성은 2시간 38분, 여성은 4시간 29분이다. 특히 생계형의 경우, 남성은 9시간 5분, 여성은 7시간 35분 노동을 하고 있다.

둘째, 중·고령자 가정생활영역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밝혔다. 남성 중·고령자는 20세 이상 집단보다 가족보살피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성은 가족보살피기시간은 줄어들고 가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남성 중·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족보살피기를 통해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여성 중·고령자의 경우 양육활동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가정관리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또한 남녀 중·고령자 모두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미취학아이보살피기를 하는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남1:20, 여1:96). 이

는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의 돌봄 역할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셋째,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여가시간은 20세 이상 성인보다 1시간가량 증가하지만, 여가활동은 교제및취미활동보다 미디어이용이 증가했다. 이는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이 다채롭지 않고 수동적 활동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양적 시간은 증가했지만, 여가활동의 다양성은 보장받질 못하여 질적 측면의 증가를 감지할 수 없었다.

넷째, 남성 중·고령자는 균형형, 생계형, 여가형, 가정적여가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균형형은 중·고령자의 모든 연령에 균등하게 분포하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고, 시간사용만족감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정생활시간이 적고 유배우자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가장 높아서 아내가 가정생활영역을 책임짐을 알 수 있다. 생계형은 연령이 낮은 것이 특징이며(55~64세), 다양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분포를 나타냈다. 여가형은 연령이 높고(70세이상) 여가시간은 많지만 소득이 부족한 특징을 보였다. 가정적여가형은 65세~74세 이하가 많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무배우자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아내의 부재로 가정생활영역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경제활동이 적으므로 소득수준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유형이다.

다섯째, 여성 중·고령자는 여가형, 생계형, 소극형, 살림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여가형은 연령이 높고(70세이상), 소득이 낮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생계형은 연령이 낮고(55~64세)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7시간 45분이며 소득수준은 50~100만원 미만(43.2%)이다. 생계형은 시간사용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으며, 시간부족감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소극형은 세 영역의 시간이 모두 적은 집단으

로 모든 사회인구학적 집단에 고루 분포하며, 개인유지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살림형은 연령이 낮고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중간정도이며, 남편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생활영역을 책임지고 있으며 여가활동시간도 하루 4시간 51분으로(여성 전체 평균 5:39) 적당히 보내고 있다.

여섯째, 남녀의 유형을 종합해보면, 중·고령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영역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생계형 중·고령자의 성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남성 생계형 중·고령자는 하루 평균 9시간 5분 노동시간으로 월평균 100만원~200만원을 창출했고, 여성 생계형 중·고령자는 7시간 35분 노동시간으로 월평균 50만원~1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낮은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특히 여성 생계형의 경우 가장 높은 시간사용 불만족과 시간부족감을 나타내 이들의 취약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가형 중·고령자는 연령이 높고 여가시간은 많지만 소득이 부족한 특징을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아지나 소득이 부족하여 소극적 여가에 집중될 경향이 높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가활동이 미디어이용에 집중될 경향이 있다. 균형형 남성 중·고령자는 경제활동시간과 여가활동시간을 균형적으로 분배하고 있으며 아내가 가정생활영역을 책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살림형 여성 중·고령자는 남편이 경제활동영역을 책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은 가정생활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남성은 균형형이 있고 살림형이 없으며, 여성은 살림형이 있고 균형형이 없는 결과는 중·고령자의 전통적 성역할 삶의 양식을 보여준 결과이다.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중·고령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

다.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시간을 살펴보면 생계형의 경우, 남성은 9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여성은 경제활동에 주력하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기 힘들었다. 남성에게는 장시간 근로조건에 대한 지원과 여성에게는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중·고령자의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과 증가한 여가시간에 대한 지역사회 및 정부의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하다. 남녀 모두 여가형의 경우 70세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늘어난 여가시간을 대부분 미디어이용으로 보낼 확률이 높으므로 여가생활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고령자의 손자녀돌보기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남녀 모두 미취학아이보살피기시간이 길게 나타난 가정생활시간의 변화를 포착했다. 맞벌이가정의 증가가 중·고령자의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연구를 통해서 중·고령자의 가정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정책 수혜자로서 중·고령자가 아닌 이들의 인적자원과 가정 내 자원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형의 경우, 경제활동영역과 여가생활영역을 균형적으로 분배하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간사용만족감이 가장 높은 것을 밝힌 것은 의미 있다. 균형형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을 균형적으로 영위하며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집단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이들의 자원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변화하는 중·고령자의 일생생활을 위한 제2의 인생 생활설계가 필요하다. 중·고령자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배우자 유무 등의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인다. 각 유형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를 보인

다. 중·고령자를 동일한 집단으로써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설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생활시간조사를 연도별로 비교하거나 유형별 또는 시간영역별로 다채롭게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수택(1998). 근대적 일상생활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학, 32, 503-529.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795호.
- 3) 김연주·차경옥(2008). 완전은퇴와 부분은퇴 집단의 특성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3), 59-79.
- 4) 김영범·이승훈(2008).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 서울 및 춘천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28(1), 1-18.
- 5) 김은경·김응렬(2002). 노인의 생활시간 구조 분석.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 17, 145-175.
- 6) 김정석(2005). 한국 중년 남녀의 무급노동내용과 시간량. 한국인구학, 28(1), 173-201.
- 7) 김정석(2010). 준고령층 부부의 식사관련행위. 한국인구학, 33(3), 123-142.
- 8) 김주현(2007). 생활시간사용으로 본 노년기 생산적 활동. 한국노년학, 27(4), 739-754.
- 9) 김주현·한경혜(200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1(2), 209-224.
- 10) 김진욱(2006a). 한국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실증연구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8), 133-158.
- 11) 김진욱(2006b).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149-177.

- 12) 나향진(200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53-70.
 - 13) 마페줄리, M·르페브르 H. 외 저, 박재환외 역(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 14)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09). 은퇴자의 은퇴준비과정 및 생활실태 분석. 서베이레포트 2호.
 - 15) 박민자·손문금(2005). 고령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1, 121-145.
 - 16) 박수미·선보영·김진옥(2005).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17) 박재환·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한울아카데미.
 - 18) 배나래·박충선(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761-779.
 - 19) 석상훈·송현주·이근영·오병국(2008). 제2차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국민연금연구원.
 - 20) 신현구(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노동리뷰, 통권27호, 81-93.
 - 21) 양영순(2007).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시간사용과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6, 1-26.
 - 22) 윤소영(2006). 노인 여가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4), 47-63.
 - 23) 이연숙(2010). 조모의 손자녀 돌봄만족과 관련변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9(1), 15-26.
 - 24) 정경희(2001).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보건복지포럼, 61, 56-70.
 - 25) 정경희·윤지은(2010).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및 경제적 가치. 보건복지포럼, 161, 48-57.
 - 26) 정여진·안정신(2010).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2), 535-550.
 - 27)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홈페이지
<http://kostat.go.kr/survey/lifestyle/>
 - 28) 통계청(2009). 2009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09.7.29. 보도자료.
 - 29) 통계청(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2010.3.31. 보도자료.
 - 30)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9).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통계.
 - 31) 홍향숙·박수경(1994).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49-59.
 - 32) Bianchi, S. M., Robinson, J. P. & Milkie, M. A.(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Russe Sage Foundation.
 - 33) Pentland, W. E., Lawton, M. P., Harvey, A. S. & McColl, M. A.(1999). Time Use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34) Robinson, J. P. & Godbey, G.(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 투 고 일 : 2011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1년 4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5월 25일